



[제5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부산 본선 경연 심사총평]

- 지난 ~~7/2~~ ~ 7/11 ~ 7/13, 오늘까지
1. 총 8개 작품을 심사했다. 모든 작품 나름 의미가 보였으며
모든 작품을 수상작품으로 손색이 없으나 경연은 절연인 지라,
엄격하게 심사한다. 몇몇 작품은
더욱 보완하여 내년은 기약해야 할 것 같다
2. 시민 연극은 시민연극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.
작품 전체에 있어서 기존의 작품 보다는 오늘날 우리들이
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생활속의 이야기를 개발할 필요
가 있다고 본다.
3. 어떠한 이야기를 주제로 극을 만들든지 간에
그 이야기가 극속에 잘 융화되고 수용될 수 있게 충분한
연습이 있었으면 (꼭 있어야) 한다.
이러한 것들이 다소 아쉬운 듯 하다.

2026년 7월 13일

제5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부산 본선 경연 심사위원단장

유태권